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명절 연휴 관계로 점심식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오후집회도 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부터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의 정원을 채워서 앉아 주십시오.

십일조와 월정헌금 봉투가 가나다순으로 놓여있습니다. 찾으실 때 참고하세요.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두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가족을 떠나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 - 군복무자, 평화활동가 등 -을 생각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미가 6:1~8 / 시 15 고전 1:18~31 / 마 5:1~12
--

숙 3:1-10

오늘 식당 봉사 : 없음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김나경 박석희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 국지연 서안나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명절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가운 만남과 긴 휴식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마음에 품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욱 힘차고 활기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자주 눈을 감고 마음속에 고요한 성소를 마련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경희 김범진 김미현 김신실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김중수 이순정 노성희 류준모 심호선 민병배
 문현미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옥순 박창운 허정운
 방문성 박혜경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임 안종일 정현주 오상희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석철 장혜숙 이경남 이동천 이상준 이순용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증자 김창경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아름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연희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광권희 추현영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이오복 LK 무명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김명하 김재영 김진중 김홍기 문인채 박병구 배삼순
 윤석철 장혜숙 이수연 정윤주 최미자 한미영 허신열 무명6

녹색꿈헌금

윤미경 윤석철 장혜숙 윤수진 윤여민 임보람 이재상 전정현 장근성
 박희순 홍춘숙 무명4

	백혜숙	박성희		
	김신진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광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광권희	윤수진	심	심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광상준		
	신진식	윤성종		

마음으로 읽는 글

호모 루아

- 나희덕

호모 파베르이기 전에/ 호모 루아, 입김을 가진 인간/
 라스코 동굴이 폐쇄된 것은/ 사람들이 내뿜은 입김 때문이었다고 해요
 부드러운 입김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과 세균과 독소가 들어 있는지
 거대한 석벽도 버틸 수 없었지요/
 오래전 모산 동굴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얀 입김을 피워 올리며/ 밤새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의 투명성을 믿던 시절이었어요
 노래의 온기가/ 곰팡이를 피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몸이 투명한 동굴옆새우들이
 우리가 흘린 땀물에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입김을 가진 자로서 입김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허공에 대한 예의 같은 것/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도/ 유리창의 성애를 흘러내리게 할 수도
 후속,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끄는 것도 입김으로 가능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몇 마디 말로/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지요
 분노가 고인 침으로/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다니,
 신의 입김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힘이 세군요
 그러니 날숨을 조심하세요
 입김이 닿는 순간 부패는 시작되니까요

* '루아'는 히브리말로 '숨결', '입김'을 뜻함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들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동지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소망으로 순례의 여정을 채워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믿음의 동지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형제자매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쉽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양상철 선생 조항미 집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정한구 박범희 박효선 왕영순 박미영
	헌금위원	한상의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이름 없는 돌쩌귀 같은 신앙을 청하며

아직 겨울 방학의 여유와 한가함을 누리고 싶은데, 시간은 벌써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한다. ...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성서 통독 피정을 했다. 열흘째 되는 날 요한 묵시록의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며, 나는 사막으로 갔다. 침묵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다. 커다란 바위들이 아주 부드러운 명상을 하는 침묵 속을 수도생활의 평생 벗과 함께 걸었다. ...

내가 누린 이 침묵의 맛을 최대한 누리며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은 무얼까 하고 생각하다가 가능한 한 아주 느리게 나의 모드를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뛰어다녀야 하는 일상의 급류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수업을 시작하는 수요일보다 훨씬 먼저 가서 책상 정리도 하고, 공연히 동료들에게 가서 새해 인사도 하고, 그들의 연말연시는 어떠했는지도 듣고 하면서 한가한 이 시기를 최대한 늘려가기로 했다.

새 학기에 보는 학교는 정다우면서도 늘 새롭다. 새해에는 학생들의 마음도 좀 더 많이, 그리고 깊이 헤아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열심히 도와주리라고 학교 대문을 넘으면서 생각했다. 사실 학교 일과 관련해서 내가 세운 새해의 결심은 학교에서 청소하고, 잡일 해주는 분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주는 일이다. 마음 같지 않게, 늘 내 수업을 도와주는 고마운 이데인데도 그냥 “Good morning, my friend”라고만 인사했었다. 내 사무실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끄럽지만 난 아직 모른다. 그저 청소하다가 배고프면 내 방에 있는 거 먹고, 커피도 마시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자매가 얼마의 임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려고, 새벽 일찍 나와서 학교를 청소하는지 나는 모른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야겠다.

그런데 며칠 전 교황님의 추기경 임명 소식이 언론에 나오더니,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추기경 임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황님이라고 무언가 파격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번

추기경 서임은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고, 새해 새 학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동료 교수가 너의 한국도 새 추기경이 있다며 축하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우리 교회에 추기경이 탄생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걸까? ...

추기경이란 말은 라틴어 카르디날리스(cardinalis)에서 온 말로 돌쩌귀, 즉 문의 경첩을 가리키는 말에서 왔다. 나는 이 의미를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 서서, 사람들의 아픔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세로부터 이어오는 위계질서 속에서의 고위성직자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추기경을 가진 한국 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자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한국 교회가 커다란 조직력과 경제력으로, 무슨 행사든지 잘 치러내며,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멋진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한국 교회가 그런 걸로 유명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자본주의의 힘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서 싸우는 것으로 유명해지면 좋겠다. ...

그래서 이제 나는 고위성직자에게 이리이러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힘차게 이끌고 계심을 믿기로 했다. 우리는 이미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신앙을 사는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주에 깃들인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꾸미고 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않는가. 그리고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형제, 자매로 모시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위성직자가 아니고, 이름 없는 돌쩌귀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 고운 신앙이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아니 내게 필요한 것은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이며,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용기와 결단인 것이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나도 이곳에서 돌쩌귀의 삶을 살아보아야겠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기억해야겠다.

- 박정은, <‘신학 오디세이아’ 칼럼> 중에서
(박정은 : 현재 캘리포니아 소재 홀리 네임즈 대학의 영성학 교수)